

코로나19가 가져온 공포… 음식점 줄폐업

제주시권 4월까지 271곳 문 닫아… 전년비 70% ↑
창업은 17% 감소… 1곳 개업하면 1곳 폐업 ‘악순환’
관광객 반토막에 도민도 외식수요 줄며 운영난 가중

제주시 지역에서 울들어 4월까지 문을 닫은 일반음식점이 작년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도민들도 외출을 꺼리면서 외식수요가 줄어들어 운영난을 겪는 식당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일반음식점 271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폐

업한 일반음식점(159곳)에 견줘 70.4% 증가한 것이다. 이기간 일반음식점 창업은 275곳으로 작년 같은기간(330곳)보다 16.7% 감소했다. 경기침체에도 코로나19가 겹치며 작년보다 창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증가해 음식점 1곳이 문을 여는동안 다른 한편에선 1곳이 문을 닫을만큼 부침이 더욱 심해졌다.

제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의 최근 3년간 창·폐업 추이를 보면 2017년 창업 1009곳·폐업 368곳, 2018년 창

업 1039곳·폐업 437곳, 2019년 창업 1071곳·폐업 529곳으로 창업은 비슷하지만 폐업이 증가 추세로 경기 호조세에서 침체기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음식점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 은퇴층과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 등 자영업자들이 몰리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히면서 평소에도 동종업계간 출혈경쟁이 심각한데,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종업원을 줄이고 가족중심 경영으로 버티는 곳들이 적잖은 상황이다. 게다가 진정국면을 보였던 코로나19가 지난 8일부터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다시 확산되는 등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음식점 수입이

감소해 높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비 회수는 커녕 빚만 떠안은 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 사회 전반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관계자는 “음식업은 부침이 심한 업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제주시가 경영난에 처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취급을 희망하는 음식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음식점 405곳이 신청했는데, 제주사랑상품권 비가맹점인 음식점에서는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발행한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없어 전통시장에서 식재료 구입 등에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5일 금요일 음 4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남풍이 유입되면서 아침부터 오후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 낮 최고 기온은 20~25℃의 분포를 보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90%	제 주	90%
90%	성 산	90%
90%	고 산	90%
90%	서귀포	90%

해돋이 05:34	달뜨기 01:47
해짐 19:27	달짐 12:38
물때 만조 05:56	간조 12:36
18:01	23:56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호리고 비	17/24℃
모레	☁	호리고 비	17/25℃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주의	보통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4·3 교육’ 온라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평화·인권 교육에 활용되는 동영상 ‘제주4·3의 이해’를 제작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대상 4·3 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가 연기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 원격교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도교육청 유튜브에 탑재한 상황이다. 동영상에는 제주4·3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현대적 의의·평가 등이 담겼다.

송은범기자



평민 교실 외로운 선생님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상국기자

등교개학 연기에 혈액수급 직격탄

지난해 헌혈자 27%가 10대
올해 코로나19로 등교 연기
학생 단체헌혈 감소로 연결
혈액원 “헌혈 적극 동참을”

제주 헌혈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10대 헌혈자가 올해 들어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평소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던 단체 헌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

도혈액원에 따르면 울들어 지난 4월 말까지 헌혈에 동참한 도민은 1만 2546명이다. 이중 10대 헌혈자는 2175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올해 헌혈 인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9%(3653명)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 22%(2717명), 30대 20%(2495명), 50대 11%(1328명), 60대 이상 1%(178명) 순이다.

10대 헌혈 인구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헌혈자 1만1388명 중 10대는 3035명으로 전체의 27%였다. 1년 전

과 비교하면 10대 헌혈 인구 비중이 10%p 줄었다.

10대 헌혈자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에서의 학생 대상 단체 헌혈이 불가능한 점이 꼽힌다. 특히 5~6월은 학교 단체 헌혈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혈액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혈액원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 사이에서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

다. 지난해 4월말 기준 단체 헌혈자(공공기관·단체, 개인기업 등 포함)는 4278명이었지만 올해 동기간 단체 헌혈자 수는 3757명으로 521명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이 알려지며 직접 혈액원을 방문하는 ‘개인 헌혈’이 지난해 7110명에서 올해 8789명으로 1679명 늘어난 것은 위안거리이다.

제주혈액원 측은 현재 6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개인헌혈뿐 아니라 단체헌혈에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대혜기자

도소방본부 드론 전문 조종인력 양성

내년 드론 수색구조대 신설
“앞으로 조종인력 확대할 것”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 17명을 드론 전문 조종인력으로 양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소방공무원 8명은 3주간 민간 드론기업(드론버스)에서 교육을 받은 뒤 지난 14일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치러진 드론 조종 국가자격 시험에서 모두 합격했다. 나머지 9명은 현재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드론



소방공무원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훈련기 4대를 구입해 소방서에 배치했다. 내년에는 훈련기가 아닌 재난 현장 등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을 추가 구입하는 한편 이른바 ‘드론 수색구조대’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드론은 재난 현장을 입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인 장비”라며 “앞으로 드론 전문 조종인력을 더욱 확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월 드론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드론을 활용한 안전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소방 드론 조종인력 육성 등에 협력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지역사회 소셜펀딩캠페인

제주도내 청소년 온라인 학습장비(태블릿PC) 80대 지원

제주도내 24개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셜펀딩을 진행하여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장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청소년(취약계층들)에게 태블릿PC 총 80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예비)사회적기업들과 관련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이 담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뭉쳤다

참여기업

꽃마리협동조합, 더불어, 디오워드,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시와월드, 예고소랑, 월드씨앤에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일베옴더, 일하는사람들, 정성기업, 제주다,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제주살림,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희망협동조합, 클린서비스보금자리, 풀개협동조합, 하례감귤정배협동조합, 하효살림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행복나무, 협진 (가나다 순)